

 기획재정부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9. 24.(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하다애 사무관 daae0517@korea.kr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심규진 (044-215-2750)		심승미 사무관 shimsm0302@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김애리 사무관 arkim0814@korea.kr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장 조영욱 (044-215-8550)		김윤 사무관 ykim96@korea.kr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정책팀장 하태원 (044-215-8520)		권영현 사무관 hyeon1122@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장 김우철 (044-960-6170)		박상우 사무관 jerrypark@korea.kr

제목 :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역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3(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 (고용부, 제목만 공개)
- ②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산업부, 제목만 공개)
- ③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토부, 제목만 공개)
-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개최배경 】

제33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경기 흐름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美 연준 등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같은 시장불안요인이 불거질 가능성에 유의하고, 대내적으로는 부문별로 불균등(uneven)한 회복흐름에 대응하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손금융권이 동참하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2년 3월까지 6개월 연장('21.9월말→'22.3월말)한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노력입니다.

정부는 연장조치와 함께 차주의 장기·분할 상환을 돕고, 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등 질서있는 정상화 차원에서 촘촘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우선, 상황이 가능한 차주는 충분한 거치기간(최대 1년) 부여, 상황기간 장기화(3년→5년)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상황이 어려운 차주는 채무조정제도 개선²⁾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차주들의 정상화 노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균등한 회복이 장기화되어 경제에 항구적인 상흔(Scar)을 남기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기 前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의 보호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범위와 주기를 개선하는 등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와 같은 완전한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를 담아
①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의 확충을 점검하고
②상생형 지역일자리 진행상황,
③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및 신복위 채무조정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등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입니다.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7.8월 1,285만명에서 '21.8월 현재 1,443.6만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에 예술인이 포함되어 약 6.8만명('21.9.9일 현재)이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³⁾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과액이 가능해졌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6일 기준으로 23만명 이상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서 코로나 위기 시에 고용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지역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호 모델(20.6월 선정)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형SUV)가 첫날(9.14) 1.9만대(1만 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하여 올해 생산목표인 1.2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 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디지털트윈국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디지털 트윈⁴⁾은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첨단기술입니다.

4)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상의 소요 비용·시간 단축 및
위험사고 예방 등을 할 수 있어서
도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기반시설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국가적 전략 과제⁵⁾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토·시설물 안전 관리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의 범용 기반이 되는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22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소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을 앞당겨 조기 구축('25년→'22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하여
'3차원 지상지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의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구축을 완료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에는 일반국도(14,000km)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구축한 3D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인프라 시설관리, 재해예방 등 도시행정서비스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10개 지자체에 대해 시범사업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영국) 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 (싱가포르) Virtual Singapore Project

6) 인천시(화재대응 플랫폼), 제주시(환경영향평가 플랫폼), 아산시(지능형 하천관리) 등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보안정보 제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선도할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신산업 창출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이번 주 OECD가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Top10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경제의 금년(3.8→4.0%)과 내년(2.8→2.9%) 성장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보수적으로 전망해왔던 OECD가 성장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 모두가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⁷⁾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단단하면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협업과 세심한 점검을 통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7) '21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OECD)4.0 (IMF)4.3 (3대신평사)4.0 (ADB)4.0